

야구

4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유희관(오른쪽)은 지난해 개막을 앞두고 "10승을 올린다면 팬들에게 커피를 돌린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해 30경기에서 10승 고지를 밟은 그는 28일 잠실 롯데 자이언츠전에 앞서 커피트럭을 섭외해 200만 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했다. 팬에게 직접 커피를 선물하고 있는 유희관.
장실 | 김중원 기자 won@donga.com

커피차 쓴 유희관 10승 공약 지켰다

(지난 시즌)

"와, 유희관이다."

롯데 자이언츠-두산 베어스전이 열린 28일 잠실구장. 두산 유희관(33)이 중앙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이 환호했다.

유희관은 지난해 한 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10승을 하면 팬들에게 커피를 돌리겠다." 다행히 2018시즌 30경기에서 10승(10패·평균자책점 6.70)을 거두며 팬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었고, 28일 경기에 앞서 이를 실천으로 옮겼다. 커피트럭을 섭외해 200만 원 상당의 커피를 팬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점심식사를 마친 유희관은 직접 현장으로 나섰다. 일찌감치 길게 줄을 선 팬들에게 일일이 커피를 나눠줬다.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엄청난 인파가 몰렸지만, 사인과 사진촬영 요청도 마다하지 않는 '팬서비스의 정석'을 몸소 보여줬다. 시원한 커피를 받아 든 팬들의 얼굴에 미소가 퍼졌다.

유희관은 올 시즌을 통해 부활을 선언했다. 지난해까지 6시즌 연속 10승 이상을 거두며 팀의 핵심 선발투수로 활약했지만, 투구 내용에 만족할 수 없었다. 6.70의 평균자책점은 성에 차지 않았다. 올 시즌을 앞두고 몸무게를 9kg이나 빼는 등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6경기에서 1승2패, 평균자책점 4.20을 기록 중이다. 승운이 따르지 않아 승수 쌓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확실한 변화가 보인다. 2018시즌과 견줘 스트라이크존 낮은 코스를 공략하는 기술이 향상됐고, 끝까지 공을 채는 동작도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덕에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공약을 실천할 수 있었다. 이를 지켜본 구단 관계자도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유희관은 "팬들께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다. 확실히 보람이 있다"고 환하게 웃으며 사인회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빙을 도운 커피트럭 대표에게도 "바쁘실 텐데 직접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전했다.

장실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김태형 vs 양상문...두산-롯데 벤치클리어링 감독 충돌 왜?



두산 베어스 김태형 감독(왼쪽 사진 왼쪽)이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전 8회말 소속 선수 정수빈이 사구를 맞은 뒤 상대 투수와 코치에게 "야구 좀 잘하자"는 뼈 있는 한마디를 남긴 뒤 권명철 수석코치와 함께 1루 덕아웃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를 전해들은 롯데 양상문 감독(오른쪽 사진 오른쪽)이 격분하자 공필성 수석코치가 말리고 있다.
장실 | 김중원 기자 won@donga.com



“왜 맞히나” “왜 욕하나” 열받은 감독들

8회말 정수빈 옆구리 강타 사구 촉발 김 감독, 구승민 호통...양 감독 발끈 정수빈 갈비뼈 골절...오늘 추가검진



KBO리그에선 희귀하게도 양 팀 감독이 그라운드에서 직접 충돌한 벤치클리어링이 벌어졌다. 선배를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 깊은 KBO리그에선 그동안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28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롯데 자이언츠-두산 베어스전은 초반에 승부가 크게 기울었다. 롯데가 2-9로 뒤져 5연패의 위기에 빠진 8회말 2사 1·2루였다. 롯데 구승민의 2구째 시속 148km짜리 직구가 두산 1번타자 정수빈의 옆구리를 때렸다.

정수빈은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고, 곧장 두산 트레이너와 권명철 수석코치가 달려 나와 상태를 확인했다. 롯데에서도 공필성 수석코치가 타석으로 나왔다. 수석코치는 통상적으로 상대 선수가 몸에 공을 맞고 쓰러지면 부상 정도를 확인하며 미안함을



롯데와 두산이 맞붙은 28일 잠실구장에서 보기 드물게 양 팀 감독간 충돌이 벤치클리어링으로 이어졌다. 한데 모여 긴장감을 높고 있는 양 팀 선수단.
장실 | 김중원 기자

표시한다. 여기까지는 관행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두산 김태형 감독까지 정수빈을 직접 살피러 나온 뒤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 감독이 공 수석코치, 그리고 타석 가까이 다가와 서있던 구승민을 향해 무언가 말을 했고, 갑자기 권 수석코치가 김 감독과 공 수석코치 사이를 가로막았다. 공 수석코치가 어필을 했고, 김 감독도 맞서다 권 수석코치의 만류로 덕아웃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순간 롯데 양상문 감독이 3루쪽 덕아웃을 박차고 나와 1루쪽 덕아웃을 향해 강하게 소리를 쳤다. 롯데 코치들이 거듭해서 말렸지만, 양 감독은 격하게 항의를 지

속했다. 덕아웃으로 돌아갔던 김 감독이 이 소리를 듣고 다시 나오면서 양 팀 선수들 모두 흠플레트 주위로 뛰어 나왔다.

양 팀 감독들은 코치, 선수들에게 가로막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았다. 그러나 양 감독은 김 감독을 향해 소리를 질렀고, 김 감독은 굳은 표정으로 한동안 맞서 약 3분간 경기가 중단됐다.

곧장 상황을 확인한 박기택 심판조장에 양 감독은 "경기 중에 일어난 일이다. 일부러 맞혔잖나? 왜 상대 감독이 우리 선수를 야단치고 욕을 하나"라고 항의했다.

경기 후 양 감독은 몹시 격앙된 표정으로 "경기 중에 상대 선수를 왜 그런 말로 야단치나"라고 말했다. 롯데 홍보팀은 "폼

KBO리그 경기결과		▶ 28일
잠실	롯데 2 : 9 두산	
고척	KIA 5 : 13 키움	
수원	SK 3 : 0 KT	
대구	LG 2 : 1 삼성	
창원	한화 4 : 10 NC	

6호포 광...6연속 위닝시리즈 이끈 박병호

(키움)

4경기 3홈런...물오른 장타 본능 막강 화력 선봉...KIA전 13-5 승

키움 히어로즈가 박병호(33)의 대표를 앞세워 6연속 위닝시리즈를 장식했다.

키움은 28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의 홈 대결에서 4타수 2안타(1홈런) 2타점 2득점을 기록한 박병호의 맹활약에 힘입어 13-5 승리를 거뒀다.

이번 승리로 키움은 연속 '위닝시리즈' 행진을 '6'까지 늘렸다. 2일 창원 NC 다이노스전을 시작으로 28일 KIA전까지, 3연

전 시리즈를 치른 경기에서는 모두 2승 1패 이상을 기록했다. 우천으로 취소된 광주 원정을 제외하면, 4월 3연전 전 시리즈에서 위닝시리즈를 챙겼다.

전력의 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최근 키움의 무서움이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않지만, 어느 한 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 쪽이 즉각 그 부족함을 메워낸다. 28일 KIA전 역시 이런 흐름의 연속이었다.

이날 키움은 선발투수 안우진이 5이닝 5실점(4자책점)으로 부진했다. 그러나 폭발한 타선과 뒤를 든든히 막은 불펜의 힘으로 승리를 낚아챘다.

화력 담당은 박병호가 맡았다. 팀이 1-0으로 앞선 4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홍건희의 시속 145km짜리 직구를 밀어 쳐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최근 4경기에서 3개의 홈런을 때리면서 물오른 장타 본능을 뽐냈다. 시즌 6호포로 홈런왕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8회에는 추가 타점까지 만들며 4번타자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불펜진은 필승조가 나란히 호투했다. 오주원~김상수~한현희~김성민이 모두 1이닝 무실점으로 활약해 경기를 깔끔히 마무리했다. 전력의 질묘한 조화가 어우러진 영웅군단의 질주가 다음 시리즈에서도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척 |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키움 히어로즈 박병호가 28일 고척 KIA 타이거즈전 4회말 2-0으로 달아나는 우월 솔로홈런을 터트린 뒤 덕아웃으로 돌아와 동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강한 2번’ 나성범, ML 진출 사전포석?

(NC)

이동욱 감독, 2번 배치 동기부여

NC 다이노스 나성범(30)은 2013년 1군 데뷔 후 지난해까지 주로 3번 타자로 뛰었다. 그 기간 동안 966개의 안타를 쳤는데 이중 826개를 3번에서 기록했다. 4번과 5번으로도 종종 타석에 섰지만 NC 3번타자는 곧 나성범을 상징했다.

그러나 올 시즌 이동욱 감독은 2번 나성범 카드를 계속해서 실험하고 있다. 양의

지를 영입한 뒤부터 구상한 새로운 타순이었다. 박석민, 크리스티안 베타코트 등 중심타자 후보들이 모두 가동되자 다시 나성범의 2번 가용을 시작했다.

28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전 2번 주인공도 나성범이었다. 박민우가 리드오프를 맡고 나성범은 박석민~양희지~베타코트로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 앞에서 공격을 이끌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0-0으로 맞선 3회



NC 나성범

말 나성범은 상대 선발 장민제가 던진 2구 122km 포크볼을 밀어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선제 결승 3점 홈런을 터트렸다. 나성범은 이날 3타수 2안타 3타점 2득점 불넷 2개로 2번 역할을 완벽히 해냈고 팀은 10-4로 이겼다.

이동욱 감독은 최근 각 팀 사령탑들이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강한 2번'의 경쟁력에 주목하며 나성범을 2번에 기용했다. 선수에 대한 배려도 담았다. 이 감독

은 "더 많은 홈런과 안타를 노릴 수 있는 2번 타순이 나성범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몇 해 전부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에게 주목을 받아온 나성범은 올 시즌 후 구단의 동의를 받으면 해외진출 자격을 획득한다. 나성범에게 올 시즌은 팀의 명예회복과 함께 오랜 꿈이었던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한 쇼케이스이기도 하다. 그만큼 타석에 설 기회가 많은 2번타순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